

김종열 | 사무국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창녕제일고등학교 조경과 산학겸임교사

조경수의 재배기술 (이팝나무)

이름	이팝나무
과명	물푸레나무
학명	<i>Chionanthus retusa</i>
개화기	5~6월
열매결실	9~10월

이팝나무는 순백색의 5~6월에 피는 꽃은 나무전체를 뒤덮어 마치 흰 눈이 온 것처럼 장관을 이루며 또한 향기가 있어 사람의 마음을 매료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팝나무 꽃의 개화 모습을 보고 그해의 농사가 풍년이 들것인지 흉년이 들것인지를 점치는 바로매타로 삼았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1. 나무이야기

이팝나무에 대한 유래의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화시기가 “입하”절기에 개화하기 때문에 이팝나무라고 불렀다는 설과, 둘째로는 나무에 핀 꽃의 모양과 색깔이 마치 흰 쌀밥과 같다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학명인 *Chionanthus* (치오난투스)는 눈이라는 뜻의 Chion (치온)과 꽃이라는 뜻의 antos (안토스)를

합친 말로 하얀 꽃이 마치 흰 눈과 같다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팝나무 꽃이 흰 쌀밥처럼 생겨서 전해 내려오는 못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가 나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고 시집생활을 하던 착한 며느리가 제사지낼 밥을 짓다가 뜬이 들었는지 보려고 밥알 몇 개를 떠먹은 것 때문에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구박에 견디다 못해 결국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며느리의 무덤가에 쌀밥과 같은 흰 꽃이 가득 핀 나무가 한그루 자랐는데 동네사람들은 이 나무를 쌀밥에 한이 맺힌 며느리가 죽어서 된 나무라 하여 이팝나무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2. 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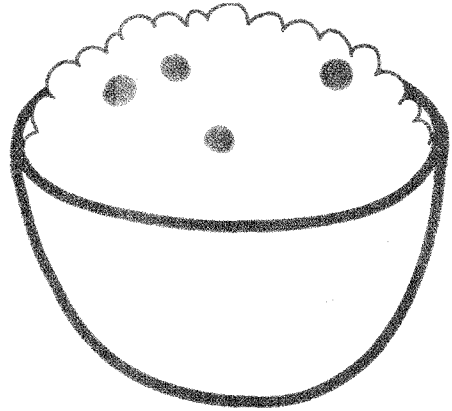
이팝나무의 번식은 종자번식으로 10월 중, 하순경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하여 2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었다가 과육을 제거한 후 습한 모래와 섞어서 2~7℃의 저온에 일정 기간 노천매장하여 파종 전 70℃의 온탕에 5분간 침지하였다가 파종하면 발아가 촉진됩니다.

파종 상의 토심은 20cm 정도의 부드러운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아 후 1년생 묘목을 이식하는 것이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3. 생육특성

이팝나무는 내음성, 내한성, 내공해성이 강하나 건조에 약하므로 토심이 깊은 부식질 토양이 좋으며 나무를 자라게 할 기간을 고려하여 식재거리를 판단하여 식재후 지하고를 180cm로 하여 2~3년차에 걸쳐 필요한 가지를 3~4가지로 균형을 맞추어 진정합니다. 1~2년차는 생육이 느리나 3년차부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잘 자랍니다. 특히 많은 시비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도장으로 수형이 흐트러지므로 시비를 적절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정

전정은 2~3년차부터 2~3차례 실시하며 4~5년차부터는 불필요한 도장지만 제거하여 수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길게 자란 도장지에는 꽃눈이 거의 없으므로 위치에 맞게 전정해줍니다. 전정의 적기는 12월~2월입니다.



5~6월 만개된 모습

5. 병충해 및 방제

이팝나무는 병충해에 매우 강한 나무입니다.

병해로는 흰가루병·세균성 반점병이 고온기에 발생할수 있으며, 흰가루병은 만코지(다이젠엠45)수화제, 지오판(톱신엠)수화제, 베노밀수화제 등을 살포하고, 세균성 반점병은 살균제(세균성반점병)+살충제+영양제를 살포합니다. 🌧️



잘 정돈된 가로수